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라 이것의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애가 3:22-23)

이상 기온 탓일까요? 계절의 변화를 느끼기 힘들 만큼 가을과 겨울의 경계가 흐려지고,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로 인해 감을 잡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정한 시간 주기로 계절의 변화를 느끼기보다는, 일주일 내에서도 따뜻함과 추위가 번갈아 나타나는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인디오마을에서 새벽녘의 추위로 인해 뜬 눈으로 보내다가 겨우 잠을 청하면서도,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다시 떠오르는 아침 햇살의 밝음 속에서 한 해를 인도해 주신 복을 헤아려 보며 주께, 믿음 안에서 동역자된 교회와 성도들께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처음 인디오 마을에 발을 내딛으면서, 아픔과 고통 속에서 가난이 일상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어떻게 하면 아픔을 덜어줄 수 있을까 질문해 왔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한 이들, 고통 속에 신음하며 도움을 청하는 이들을 위해 여러 번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때로는 배고픔과 질병의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셨듯이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능력을 주시도록 여러번 간절히 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선교사는 해결사가 아닌, 가난과 아픔,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이들 곁에서 함께하는 동행자라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후로 할 수 있는 대로 먹을 양식을 나누며 아픈 자에게 의약품과 복음을 전하며 지내다보니 20년을 훌쩍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님은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인디오마을의 한 곳에 의료 및 치과진료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재작년 12월에 땅을 구입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작년 4월 1일부터 매주 인디오마을을 오가며 예배당과 의료진료소 건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예배당 건축을 한 적이 있지만, 의료시설인 치과클리닉을 건축해 본격은 없는지라 인터넷을 통해, 여러 치과의사들을 통해 자문을 구해가며 조금씩 모양을 갖추어가고 있음에 감사가 있습니다. 아직 다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인디오 마을에 설치된 의료시설을 통해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 덜 아플 수 있도록, 아픔이 해결되어질 수 있기를... 그러면서 영적 고통과 사망 속에 있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 새생명을, 참된 소망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2025년을 맞이하며 동역자님들께 마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삶 공부 속에 감추어진 기쁨>

멕시코의 사역 속에 늘 경험하는 것이지만, 13주간의 성경공부를 마치는 것은 하늘 아버지의 특별한 은혜와 도우심, 그리고 참석하는 사람들의 헌신과 결단이 필요한 것임을 다시금 보

게 됩니다. 8명이 등록해서 시작했지만, 마칠 때에는 5명만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부를 마친 5명 중 한 부부가 청소년 목장의 리더로 헌신해서 섬기기로 결단하고 사역에 동참하게 된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특별히 알론드라(Alrondra) 자매는 남편(Alejandro)과 함께 주일학교 교사로도 헌신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모든 성도들에게 큰 격려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좋은 리더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알레한드로와 알론드라 부부에게 아직 아이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을 주셔서 주님을 섬기면서 누리는 기도응답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지사역자들과 함께>



두 달에 한번씩 모이는 오아시스 목회자모임과 청소년연합사역을 위해 모이는 목회자들과의 연말모임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3년간 모이지 못했던 연말모임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며 감사한 것들을 나눌 수 있었고, 새롭게 주어지는 한 해를 기대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어찌면 매년 반복되는 것 같으면서도 조금씩 확장되어가는 사역을 생각하며 언제까지 섬길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어찌면 그리 많은 시간이 남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순간을 놓치지 않고 순종하는 삶, 그 삶 속에 주님의 일하심을 느끼며 그분을 배워가는 기쁨이 계속되길 소원하면서 기도의 동역자로, 물질의 후원자로 섬겨주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께 마음깊이 감사를 전합니다. 동역자들의 간절한 기도와 헌신적인 드림을 통해 멕시코 땅에, 위출인디오 마을에 확장되어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더 풍성히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하며 소식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 1) 주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기쁨으로 순종하고 영혼구원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 2) 인디오 마을에 세워질 선교센터(예배당과 치과진료시설)가 잘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 3) 선교센터 공사를 위해 헌신적으로 섬기고 있는 형제들의 안전과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위해
- 4) 하비엘&카르멘, 콘스탄시오&레티 사역자 부부, 목자로 헌신한 알레한드로&알론드라의 영적리더십과 필요가 채워질 수 있도록

멕시코에서 2025년 1월
추기성, 정지연선교사드림